

이야기 9 : 야곱 1
(두 형제의 갈등)

주제말씀
[창세기 25:33]

아겔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여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아겔에게 판지라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먼저 태어난 아이는 붉고 털이 많았어요. 이삭은 이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어 주었어요.

그리고 에서의 뱀꿈치를 잡고 태어난 동생을 '아겔'이라고 지어 주었어요.

에서는 자라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아겔은 집에서 가축을 돌보며 집안일을 도왔어요.

어느 날, 아겔이 죽을 만듦과 있었어요. 사냥하다 돌아온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파요.

에서가 동생에게 말했어요. "아겔아! 죽 좀 줘래?" 아겔이 대답했어요.

"그러면 대신 형의 자리를 오늘 내게 팔면 죽을 줄게."

에서는 형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겔이 말하는 대로 했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가 된 이삭은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삭이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나를 위해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해 주겠다."

그런데 이삭과 에서가 나누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엿듣게 되었어요. 리브가는 아겔을 불러서 말했어요.

"아겔아, 우리에게 가서 좋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네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구나."

리브가는 아겔이 가져온 새끼 양으로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에서가 입던 옷을 아겔에게 입혀 주었어요.

또, 아겔의 손과 목에 염소 털가죽을 붙였어요.

아겔은 어머니가 요리한 음식을 들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곶은 들캉까 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는 아곶을 반져 보았어요.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진 아삭은 탈난 몸을 반져보고는 정말 에서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삭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아곶을 축복해 주었어요.

얼마 후, 에서가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삭은 에서에게 “조금 전에 네가 왔가에 축복을 해 주었는데.” 라고 말했어요.

에서는 너무 화가 났어요.에서는 동생 아곶이 미웠어요. 그리고에서는 다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곶을 죽일 거야.”

에서의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몰래 엿듣게 되었어요.

형의 미움을 받은 아곶은 그 후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살게 되었답니다.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해 보세요. (창세기 25:33)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활동 1.

죽을 만들 재료들을 잘라 큰 솥 안에 붙여보세요.



활동 2.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의 그림을 색칠해 주세요.

